# 무대 위 '윤동주, 그를 만나다'

'윤동주, 그를 만나다' 공연이 오는 11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밴드 쟁이의 지난 공연 모습. 〈유태경 제공〉

## '밴드 쟁이' 11일 융복합 공연
## 광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 호남신학대 선후배 4인조 밴드
## 시·음악·그림 어우러진 공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중략)//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의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양심을 대변했다. 그는 현실의 억압과 개인적 고뇌를 넘어 한 시대의 삶과 의식을 순수한 언어로 노래했다.

1917년 만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난 윤동주는 개신교 집안에서 성장하며 일찍이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1942년 도쿄 릿쿄대학에 입학했고, 그곳에서도 조선인 청년들과 모여 독립을 논했다. 일제가 한국인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해 시행한 징병제를 비판하며 시로 저항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1943년 여름방학을 맞은 귀향을 앞두고 항일운동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그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여덟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식민지 지식인의 슬픔과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희망을 담은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남긴 채였다.

윤동주 서거 80주기를 맞은 올해 그의 언어가 다시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억압 속에서도 순결한 정신을 지키려 했던 청년 시인의 목소리가, 음악과 낭독, 그림으로 확장돼 오늘의 관객에게 닿는다.

밴드 쟁이의 융복합 공연 '윤동주, 그를 만나다'가 오는 11일 오후 6시 광주 남구 봉선동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밴드 연주와 샌드아트를 결합해 시인의 언어를 다층적으로 전하는 무대다.

공연의 중심에는 혼성 4인조 밴드 '쟁이'가 있다. 호남신학대 음악과 선후배들이 뭉친 팀으로, 팀명은 '장이'에서 파생됐다. 각자가 맡은 악기를 자유롭게 다루며 즉흥성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재즈를 기반으로 클래식, 팝, OST 등 여러 장르를 재해석하며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온 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자화상', '새로운 길', '별 헤는 밤', '서시' 등 앨범 수록곡을 새롭게 편곡해 들려준다.

특히 두 곡의 신작이 무대에서 첫선을 보인다. 기악곡 'Dongju…'는 윤동주가 지금 이곳에 살아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며 만든 곡으로 악기만으로 시인의 일상적 숨결과 풍경을 그린다. 듀엣곡 '소년의 꿈처럼'은 윤동주의 여러 시어를 엮어낸 노래로 시인의 꿈이 오늘의 꿈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밖에도 '자화상'은 재즈 발라드, '별 헤는 밤'은 락 발라드, '편지'는 왈츠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윤동주의 세계를 다층적으로 펼쳐낸다.

또 샌드아티스트 정민아는 모래로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그려내고, 김윤성·정해은 성우는 시와 관련된 윤동주의 이야기를 각색해 들려준다. 오디오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낭독과 음악, 그림이 어우러지며 관객은 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의 기획·연출을 맡은 유태경은 "윤동주 시를 음악과 그림, 목소리로 재해석해 관객들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며 "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밴드 쟁이 멤버 등 공연 출연진의 모습.

# 점·선·면·색…추상의 미학

## 동곡뮤지엄, '시간의 결, 잇다'전 19일까지 연장

'시간의 결, 잇다: 회화에서 미디어아트로'전.

추상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 의미를 탐색한 기획전 '점·선·면·색-추상미술의 경계 확장' 전 가운데 2부 '시간의 결, 잇다: 회화에서 미디어아트로'가 연장된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이사장 정영헌)은 관람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2부 전시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해 관객들을 만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전남 화단을 대표했던 진양욱 화백과 아들 진시영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진양욱 화백이 사용했던 야외 이젤과 '시가 풍경'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개간지', '초원', '무등산' 등 작품을 비롯해 화구, 노트, 아카이브 자료도 마련돼 있다.

진시영 작가는 아버지의 색채와 형식을 재구성해 영상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작 '영원의 시작'은 진양욱 화백의 마지막 작품 '청산'을 모티브로 몰입형 공간으로 제작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진양욱 화백의 미완 유작 '늦가을'과 이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진시영 작가의 협업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 매주 월요일 휴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공명하는 '아시아의 몸짓'

## '2025 아시아스크린댄스' 2~4일 ACC 극장3

베트남 'Ballet'의 한 장면. 〈ACC 제공〉

몸짓은 언어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언어다. 춤은 국가와 세대를 잇고 인간과 자연, 신화를 이어주는 원초적 표현이다. 춤을 스크린 위에 담아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추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과 아시아무용커뮤니티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2025 아시아스크린댄스'를 연다. 쉽게 접하기 힘든 아시아 각국의 무용과 음악을 영화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올해 주제는 '공명(Resonance)'. 인간과 자연, 기술과 사회, 신화와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춤이라는 매개로 탐구한다. 모두 13개국 19편의 작품이 네 개의 섹션으로 상영된다.

첫 번째 섹션 '인포커스 Ⅰ: 공명하는 존재들'에서는 태국·부탄·캄보디아·싱가포르·한국의 작품들이 자연과 인간, 사회와 비인간 존재 사이의 경계를 탐색한다. 두 번째 '아시아 무용의 오늘: 젠더와 몸의 경계'에서는 인도네시아·스리랑카·이란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맥락 속 신체와 젠더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조명한다. 세 번째 '온 더 스테이지: 무대(바깥)에서 춤추기'는 태국·베트남·이란의 작품으로 무대와 일상의 경계를 허물며, 마지막 '인포커스Ⅱ'는 브루나이·인도네시아·미얀마·네팔의 작품을 통해 전통 신화와 민속 속 춤의 원형을 재해석한다.

특별 공연도 마련됐다. 3일에는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젊은 무용가들이 '아시아스크린댄스' 상영에 앞서 무대에 올라 몸의 움직임을 먼저 선보인다. 무용과 필름의 교차점을 탐색하는 본 행사의 취지를 확장하는 공연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 | |
|---|---|---|---|---|---|---|---|---|---|
| 용산지점 | 062)526-0222~3 | 유동지점 | 062)512-1984~5 | 유덕지점 | 062)373-3235~6 | 운암벽산지점 |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 062)531-7745~6 |
| 치평지점 | 062)381-8212~3 | 동림지점 | 062)513-8521~3 | 동운지점 |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청) | 062)364-8400 |
| 쌍촌지점 | 062)381-6551~2 | 운암지점 | 062)527-3295~6 | 버들지점 |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 062)361-4472~4 | 유덕하나로마트 | 062)373-3235 |
| 화정지점 | 062)372-0421~3 | 운천지점 | 062)371-2772~3 | 상무동지점 |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 062)385-4977~8 | 하나로마트동림점 |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